

지구촌 양계뉴스

일본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흡착제로 콩 활용

인체에 대한 감염확대가 우려되고 있는 고병원성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흡착제를 개발함에 있어 낫토(식사용으로 가공한 콩)의 끈적끈적한 물질을 원료로 이용하는데 성공했다. 시즈오카대학 농학부와 시즈오카현립대학 약학부 등의 공동연구 성과이다. 연구팀은 향후 이 흡착제를 마스크나 에어컨필터 등에 코팅하여 감염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낫토가 원료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표면에는 성체 가시와 같은 단백질 「헤머글루티닌(HA)」이 많이 있는데, 이 HA가 목이나 폐 세포 표면에서 창구 역할을 하는 단백질(수용체)과 결합하면 감염된다.

HA와 수용체는 조류형은 조류형끼리, 인체형은 인체형끼리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H5N1형의 인체감염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조류형 HA가 인체형으로 변이(變異)하면 대유행할 우려가 크다.

- 일본농업신문

미국

KFC, 닭고기 안전성 홍보

“닭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닭 소비가 급감하자 세계적 치킨체인점인 KFC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KFC는 미국에서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닭고기가 안전하다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치킨 상자 뚜껑에 부착해 판매하고 있다.

KFC의 모기업인 ‘얌 브랜드(YUM Brands Inc)’의 조너선 브럼 대변인은 “AI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객들에게 메뉴가 안전하다고 안심시켜 준다”고 말했다.

그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닭고기는 엄격한 안전관리를 거친 것이라면서 “(AI에)감염된 제품이 매장에 들어오는 것보다 파워볼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2배 더 높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얌 브랜드의 데이비드 노박 회장도 앞서 지난 주 열린 콘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폭풍우’를 잘 이겨내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KFC는 AI 확산에 따른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터키, 트리니다드 등에 있는



KFC 매장은 최근 몇 주 사이 매출이 푹 떨어졌다. 이에 KFC는 닭고기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고객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광고를 내보내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중국에서는 AI에 대한 우려로 고객이 크게 줄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20%나 급감했다.

반면 태국에서는 AI가 매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KFC측은 말했다.

- AP=연합뉴스

..... E U 시타격 가금 농가 특별 예산 지원 승인

유럽연합(EU)은 4월 25일 룩셈부르크에서 농업장관 회의를 열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역내 가금류 사육 농민들에 대한 특별 예산 지원을 승인했다.

마리안 피셔 벨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AI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농민들은 각 회원국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불되는 금액의 절반은 EU 예산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재고가 늘고 있는 가금육과 계란 생산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농민들에게 보상하는 가장 현명한 방식은 생산을 일시적으로 줄이는데 따른 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확산의 여파로 EU 25개 회원국내에서 소

비되지 않은 채 냉동창고 등에 보관돼 있는 가금육 재고분이 32만톤에 달하고 있다. 독일의 과잉재고분은 7만톤, 프랑스는 4만톤에 각각 달해 관련 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또 가금육 제품의 가격이 평균 13% 떨어졌으며 소비 역시 이탈리아에서 50%, 그리스에서 70%나 급감하는 등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브뤼셀=연합뉴스

..... 브라질 주인 알아본 닭 덕분에 닭서리꾼 체포

브라질에서 한 젊은이가 닭서리에 나섰다가 훔친 닭이 주인을 알아보는 바람에 경찰에 체포됐다고 현지 언론이 4월 11일 보도했다.

브라질 남부 리오 그란데 도 술 주 우니스탈다시에 거주하는 올해 21세의 이 젊은이는 지난 8일 밤 11시께 이웃 양계장에 들어가 닭 한마리와 계란 두개를 훔쳐 나오다 양계장 주인의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양계장 주인은 “밤중에 닭들이 갑자기 시끄럽게 울어대는 소리를 듣고 도둑이 든 것으로 짐작하고 곧바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경찰과 함께 양계장 밖에서 기다리다 닭과 계란을 들고 나오는 범인을 붙잡았다”고 말했다.

재미있는 것은 현장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되기도 훔친 닭이 아니라며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한 젊은이를 체포하게 된 경위.

경찰은 젊은이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자 양계장 주인과 젊은이를 닭과 함께 경찰서로 데려갔으며, 조사 도중 닭이 주인을 알아보는 행동을 계속 하는 것을 보고 범행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들였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신기하게도 닭이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젊은이가 닭을 훔쳤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면서 “절도범과 닭이 대질신문을 벌이는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절도 혐의로 입건돼 법원으로 넘겨진 젊은이는 다행히 “법은 모든 사람, 모든 범죄에 대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지만 닭 한마리를 훔쳤다고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젊은이는 그러나 닭과 계란을 합쳐봐야 5해알(약 2천원)에 불과한 금액 때문에 공사장 인부로 일하던 회사에서 해고되는 바람에 줄지에 실업자 신세가 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 상파울루=연합뉴스

자국내 수의사 전원 AI 대응교육 실시

브라질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자국 내 모든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AI 대응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국영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이 4월 25일 보도했다.

브라질 농업부는 우선 페르남부코 연방농업대학 주관으로 AI 확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부 및 북동부 지역 12개 주에서 활동하는

수의사들에 대해 다음 달부터 AI 진단 및 응급 처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교육을 담당할 대학이나 연구소가 정해지는 대로 2단계로 중서부 및 남부와 남동부 지역에서도 AI 대응교육을 시작할 방침이다.

브라질 농업부 관계자는 “인체에 치명적인 H5N1 바이러스가 브라질에 확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편이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AI 뿐 아니라 조류와 관련된 각종 질병을 진단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의 닭고기 수출국가인 브라질은 AI가 상륙할 경우 수출이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자국 내 양계업계가 연쇄 도산 사태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해 9억3천200만톤의 닭고기를 생산해 이 가운데 40%를 수출했다.

- 상파울루=연합뉴스

..... 스위스 가금류 방사금지 조치 곧 해제 방침

스위스 정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 전파를 우려해 도입했던 가금류의 방사(放飼) 금지조치를 곧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1일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연방 검역국은 이달들어 야생 조류의 AI감염 사례가 전무해 상황이 호전됐다고 판단, 이르면 2주내에 방사 금지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스위스 연방각의는 지난 2월 20일 검역국의 요청에 따라 전국 720만 마리의 닭과 오리, 거위 들에 대해 방사를 금지키로 결정했다. 방사 금지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도 한 차례 도입된 바 있다.

검역국 관계자는 “AI는 언제든 발견될 수 있지만 상황은 호전된 것으로 본다”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방사 금지 조치의 해제를 위한)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네바=연합뉴스

..... **독 일**
가금류 방목금지 조치 연장

독일 정부는 4월 21일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금류 방목금지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르스트 제호퍼 농업장관은 프리드리히-뢰플러 수의학연구소는 축산 농가의 가금류가 야생조류로부터 치명적인 AI 바이러스인 H5N1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에 따라 가금류 방목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지난해 10월 유럽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12월 중순까지 독일 전역에 가금류 방목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지난 2월에 다시 방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독일 당국은 오는 30일 가금류 방목금지 조

치를 해제할 예정이었으나 독일 내에서 AI 감염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방목금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계획이다.

독일에서는 2월 중순 북부 튀겐섬에서 AI 바이러스에 감염돼 폐사한 야생백조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독일 전체 16개주 중 7개주에서 300여건의 AI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독일 전역으로 AI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고양이와 담비 등 포유류에도 AI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독일 정부는 비상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 당국은 H5N1에 감염된 야생조류가 발견된 주에서는 고양이는 외출을 금지하고 개도 줄에 매지 않고는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가금류 농장에는 직원과 수의학 전문가 이외에는 출입이 금지됐다.

- 베를린=연합뉴스

..... **중 국**
가금류 수입 급증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중국의 가금류 시장이 침체기를 맞은 가운데 해외로부터의 가금류제품 수입이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차이나뉴스가 4월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통상부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 2월 가금류제품 수입 규모는 6853만2000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무려 142.9%나 증가했다.

가금류제품 수입 품목 중에는 주로 미국과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닭고기와 닭볶음요리가 주를 이룬다.

선광 중국동물자원협회 부회장은 “중국 시장에서 외국 가금류제품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내산과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다가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른 나라의 경우 가금류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수출국들은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기에는 중국인들만의 소비습관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가의 소비자들은 보통 닭고기의 가슴 부위를 선호하는 한편 중국인들은 닭날개, 닭다리보다 닭의 기타부위를 즐겨 찾는다. 까닭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통하지 않는 닭의 기타부위들을 중국에 저가로 공급, 대량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중국에서 어느 정도 걷혀진 것 같으나 중국의 가금류 생산업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있다.

저가의 가금류제품 수입이 점점 더 증가, 가격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중국내 가금류 생산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내 가금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출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광 부회장은 “가금류 산업 손실액이 600억위안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 아시아경제

영국

자연적으로 성별 바뀐 닭 등장



영국에서 자연적으로 암탉에서 수탉으로 성별이 바뀐 닭이 나타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4월 19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브리스톨

인근 솔트포드의 양계장 주인 조 리처드는 어느 날 암탉이 수탉처럼 해를 치며 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프레키’라는 이름의 이 닭은 지난 8개월 동안 산란까지 하는 등 분명한 암탉이 었기 때문이다.

프레키는 점점 수탉으로 변해갔다. 수탉에게서 볼 수 있는 붉은 빛이 나고 턱 아래 살이 늘어지기 시작했다.

꼬리털의 솔도 많아졌다. 1개월여가 지나자 프레키는 ‘완전한 수탉’이 되어 매일 해가 뜰 때면 울었고, 다른 수탉들과 싸웠다. 심지어 암탉들과 교미를 시도하기도 했다.

리처드는 “10년 넘게 닭을 키워왔지만 이런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동물 전문가들은 닭의 성별이 후천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1만분의 1의 확률이라며, 암탉의 난소에 이상이 생겨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면 난소가 정소로 바뀌면서 암컷이 수컷으로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세계일보



구세군, 부활절 닭고기 캠페인 실시

“부활절 계란 대신 닭 사세요.”

영국 구세군은 부활절을 맞아 개발도상국 빈민들을 위해 닭을 사주는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구세군은 지난 부활절 선물목록을 만들어 1마리에 6.5파운드(약 1만1000원)짜리 닭을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해 판매했다. 판매된 닭은 구매자의 이름으로 개발도상국 빈민들에게 전달된다.

구세군은 영국인들이 부활절을 축하하기 위해 사용하는 초콜릿 계란을 무분별하게 많이 사고 있다고 보고 그 돈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자는 취지로 이같은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구세군은 영국인들이 부활절 기간에 8,000만 개 이상의 초콜릿 계란을 사고 있으며 이는 돈으로는 50억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세군은 이 금액이면 개발도상국 빈민들에게 7700만마리의 닭과 약 10억개의 계란을 사줄 수 있는 액수라고 밝혔다.

영국 구세군 국제개발책임자 덩컨 파커 사관은 “무절제한 부활절 계란 파티는 이제 그만하고 그 돈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자”며 “닭 1마리를 사는 것으로 개발도상국 형제자매들에게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 국민일보

AI 감염 우려 닭 3만5천마리 살처분

영국 노퍽주 디어럼 근처 한 농장에서 죽은 닭들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농장의 닭 3만5천마리를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영국 BBC 인터넷 판이 보도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죽은 닭에 대한 1차 검사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인플루엔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 수석 수의사인 데이비 레이놀스는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으며 내일 안에 추가 검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과 함께 농장에 대한 격리조치를 취했으나 인근 농장의 닭들까지 살처분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YTN

